■ 수능 앞둔 고교·가정에선 지금

고득점 기원 애끓는 '철야 기도'

선·후배들 찹쌀떡·편지 돌리며 격려

수험생들 휴일에도 학교나와 총정리

오는 16일 치러지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학교 선·후배나 학부모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총동창회 차원에서 고3 후배들을 독려하고 나서는가 하면, 후배들은 수험생 선배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직접 쓴 엽서와 편지에 찹쌀떡을 선물하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사찰·교회·성당에 나가 기도를 하고, 자모회 차원에서 찹쌀떡을 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의 고득점을 기원하고 있다.

광주 동신고는 수능을 이틀 앞둔 14일 오전 총동창회 회원들이 모교를 방문해 음료수와 떡을 돌리고 고3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을 치르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조대여고의 경우 1·2학년 후배들이 지난 10일 3학년 수험생들에게 찹쌀떡을 선물했고, 수능 전날인 15일에는 교문에서 예비소집을 떠나는 선배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설월여고는 1·2학년 후배들이 3학년들에게 찹쌀떡·편지·엽서를 보냈으며, 자모회원 부모들은 수능을 앞두고 떡을 돌릴 예정이다. 대광여고의 경우 지난해까지 후배들이 3학년 교실에 찾아가 노래와 춤을 선사하는 이벤트를 열었으나, "오히려 더 부담된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에는 격려 편지와 엽서만을 돌리기로 했다.

진흥고와 석산고 등 시내 일부 학교들은 수능 전 마지막 휴일인 12일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일요일 자율학습을 강요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수험생이 학교에 나와 총정리에 여념이 없었다.

동신고 안정곤(46) 교사는 "일요일에 쉬고 싶은 학생들은 쉬라고 했는데도 많은 학생이 학교에 나왔다"며 "자율학습 지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지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내 사찰과 교회, 성당에도 수험생들의 선전을 비는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원각사에는 12일 평소처럼 50여 명의 학부모들이 나와 기도를 올렸다. 수능일 전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린 '수능생을 위한 철야정진 삼천 배'에는 1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삼천 배를 한 번 하는데 최소한 5~6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찡한 모정'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도 70~80명의 학부모가 100일간 수능 기도를 올렸다. 향림사·증심사 등 시내 주요사찰에서도 학부모들의 기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 광주시내 성당과 교회당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100일 묵주기도'나 '수험생을 위한 특별예배' 등이 열리고 있다.

수험생 딸을 위해 봉선동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 박현미(여·46·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1년 동안 가슴을 졸이며 살얼음을 딛는 기분으로 살았다"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시험 당일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답안 표기중 시간 부족

수험생들 가장 떨렸다

오는 16일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무엇보다도 시간안배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국내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수능을 전후해 당일 가장 떨리는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6명이 답안지 표기 중 시간 부족으로 당황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일부 수험생이 고시별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이른바'수능시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능시계와 고사장 중앙 통제 시간과의 시차 발생이 우려돼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포털사이트 엠파스(www.empas.com)가 지난달 30일부터 실시중인 '수능시험…제일 떨리는 순간은'이라는 설문조사에서 12일 현재 참가자 1천350명의 58.7%인 792명이 '답안지 표기 중 (감독관이) 종료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사인펜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라고 응답했다.

또 '앉아서 시험 시작되길 기다릴 때'가 26.3%로 뒤를 이었고, '1교시 언어영역 시간 듣기평가 1번 문제를 풀려는 순간'(3.6%), '시험지를 받기 바로 직전'(2.2%), '다 못 풀었는데 이제 몇 분 남았다며 마무리하라고 할 때'(1.9%), '시험지를 받아들였을 때'(1.6%)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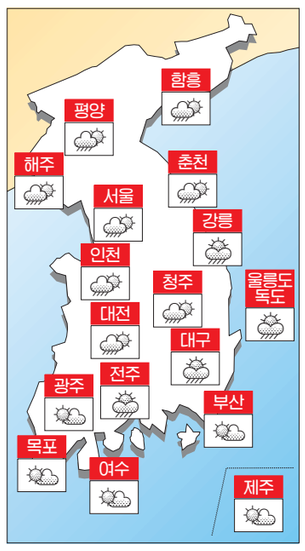
한편 수험생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로는 '격려의 말''초콜릿''찹쌀 떡''따뜻한 물이 든 보온병' '졸음방지 티슈' 등이 거론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쌀쌀한 출근길

11월 13일 (음 9월 23일) ◇전국날씨

기압골의 영향으로 맑은 뒤 오전부터 흐려지겠다.

광주	차차 흐려짐	5~18℃
목포	차차 흐려짐	6~17℃
여수	차차 흐려짐	8~16℃
완도	차차 흐려짐	6~17℃
구례	차차 흐려짐	3~18℃
해남	차차 흐려짐	2~17℃
장흥	차차 흐려짐	2~18℃
고흥	차차 흐려짐	4~18℃
순천	차차 흐려짐	2~18℃
영광	차차 흐려짐	5~17℃
진도	차차 흐려짐	4~18℃
전주	흐리고 비	4~17℃
남원	흐리고 비	1~17℃
정읍	흐리고 비	3~16℃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07:24 20:32 썰물 01:22 13:05
여수 밀물 03:09 15:46 썰물 09:01 22:38

▲해뜸 07:05 ▲해짐 17:28 ▲달뜸 --:-- ▲달짐 13:4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날 씨						
최저/최고	5/11	4/13	2/10	5/12	5/14	6/14

수능일 최저 2도…이번 주 가장 춥다

광주·전남 주간 날씨 전망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간인 11월 셋째 주에는 갈수록 추워질 전망이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D-3일인 13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 18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아지면서, D-2일인 14일 광주·전남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산간 지방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더욱 떨어진다. 기상청은 "D-1일인 15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수능 당일날인 16일은 2도까지 떨어진다"고 예보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수능 추위'가 이름값을 한 셈이다.

기상청은 한반도 북쪽을 맴돌고 있는 영하 40도의 찬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추위를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능시험이 끝난 16일 뒤에도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추위는 적어도 다음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김신일 교육 "연가투쟁 교사 엄벌"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2일 "22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年暇) 투쟁을 주동하는 교사뿐 아니라 단순 가담하는 사람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선 교사들에게 보낸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통해 "교육의 문제를 연가투쟁이라는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우리 교육계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에 따른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는 북한의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시기"라며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강행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불안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길일 중 길일' 결혼 러시…꽉 막힌 예식장 인근 도로

12일 오후 1시 광주시 남구 진월동 광주대 인근 예식장에 몰린 결혼식 하객들의 차량들이 제2순환도로 진입로의 3개 차선(왼쪽부터)에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극심한 체증을 빚고 있다. '음력 9월의 길일(吉日)과 양력 11월의 길일이 겹치는 음양오행 상 길일 중의 길일'이라는 11일도 오전 11시에 맞춰 결혼식을 올리려는 커플들이 많아 예식장 인근 도로는 대부분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광주시내 한 예식장 관계자는 "200년 만에 입춘(立春)이 두 번 겹친다는 올해 쌍춘년(雙春年) 대길일에 기분 좋게 새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주말·휴일이면 예식장마다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등교사 임용시험 광주 15대1·전남 18대1

지난해보다 경쟁률 크게 높아져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10일 원서접수 마감한 200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광주는 15대 1, 전남은 18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75명(공립 166명, 사립 9명) 모집에 2천623명(공립 2천456명, 사립 167명)이 지원해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11대 1보다 높은 것이다.

119명을 뽑는 일반 교원에는 2천563명이 지원해 2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 처음 6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교원에는 24명이 지원해 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남도교육청도 136명(공립 135명, 사립 1명) 모집에 2천446명(공립 2천420명, 사립 26명)이 지원해 지난해 경쟁률 11.9대 1보다 높은 1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도교육청은 1차 교육학(특수교사는 특수교육학)과 2차 논술·실기·면접·수업실기능력평가시험 등을 거쳐 내년 1월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광주시와 전남도는 13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일제히 시작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 생후 6~23개월 소아 ▲임신부 ▲의료인 등으로, 광주는 10만7천 명·전남은 46만여 명에 달한다.

광주의 경우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11월 말까지 65세 이상 노인 등 무료 예방 접종만 실시하고, 유료접종은 12월4일부터 실시한다. 접종료는 3세 미만 3천600원, 3세 이상 7천100원이다.

전남도는 연말까지 도내 22개 전 시군에서 예방 접종을 실시하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는 닭·오리농장 및 축산업 종사자에게 일반 인플루엔자와 중복감염 방지를 위해 접종을 우선 실시한다.

전남도 보건한방과 관계자는 "봄철에 독감이 유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예방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며 "그러나 당뇨와 암 폐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